

# 창조·상징·장소성 3박자 맞아야

## 다리(3)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진 다리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술적이나 공학적 측면에서 분명히 선진적 산물이었다. 다른 곳의 다리도 그렇겠지만 사찰에 만드는 다리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대상이었으므로 스님이나 발원자 그리고 다리를 만드는 기술자 모두 특별한 장소성을 갖기를 원했고, 모든 정성을 기울여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심미성과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동시에 다리가 가져야 하는 본래적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에는 돌다리보다 콘크리트나 철 재료를 사용한 다리가 많아졌다. 사찰의 다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료와 구조의 변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사찰에 만들어지는 다리를 보면, 예전의 우리 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우수한 작품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신소재와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적 변화를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작가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그것을 받쳐주는 경제적 뒷받침이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훌륭한 작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훌륭한 작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성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지난날 사찰에 만들어진 다리는 바로 스님들의 안목과 작가의 창조성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찰의 다리는 스님들의 높은 안목도 녹아있지 않고, 작가의 창조적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평범하거나 낮은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훌륭한 작품성을 가진 다리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될 것이다.

최근에 사찰에 만들어진 다리는 대부분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들이다. 콘크리트는 자연재료이다. 이것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도 당대의 문화성과 작가의 작품성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 발견되는 우리 시대의 다리는 재료만 바뀌었을 뿐 그 재료에 대응하는 창조성과 상징성 그리고 장소성이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로 흉예교의 구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화강석을 붙이기도 한다. 재료와 공법은 현대적이면서 양식만큼은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것은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님들의 생각이 구태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시대에 만들어지는 사찰의 다리는 우리시

대의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하고 우리시대의 즐거움을 담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작품인 것이다. 지난날 선암사 승선교에서 볼 수 있었던 상상력, 송광사 능허교와 태안사 능파교의 심미적 아름다움은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 탄생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성 있는 다리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사찰에 만들어지는 다리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우수한 다리의 작품성을 계승하여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사찰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영천 은혜사에 새로 만든 다리에서 우리 시대에 만들어질 사찰의 다리가 어떠해야 할 것

### 최근 만든 다리 작품성 결여 돌다리 줄고 콘크리트·철재로 사용 디자인도 신소재 신기술에 맞게 영천 은혜사 철제다리 시대 반영

인간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발견한다. 어쩌면 산사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철제다리이며, 디자인적으로도 우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작품성을 내세우기 힘든 다리이지만 왜 이 다리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찰에서 전해 내려온 다리의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풍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리는 약간 엉뚱한 면모를 보여준다. 다리의 교각은 없고 단지 다리 양쪽 언덕에 기초를 한 후 받을 걸고 그 위에 철관을 얹었다. 마치 그 옛날 널다리와 같은 구조인데 재료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 다리는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다리가 한국사찰의 다리가 지향해야 할 현대적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어설픈 디자인,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의 도입, 불교적 상징성의 이탈 등등이 이 다리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다리를 만든 스님이나 작가의 새로운 발상은 한국사찰의 다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다.



통도사 삼성반월교는 세 개의 무지개 돌다리로 구축되었다. 삼성반월교는 마음심(心)자를 나타낸다. 곧 깨끗한 한가지 마음으로 건너야 하는 다리라는 의미다. 즉 '일심교'를 뜻한다.

은혜사 다리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져야 할 현대적 개념의 다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다리의 양식, 예를 들면 무지개다리, 누다리, 널다리와 같은 유형의 다리를 신소재, 신공법, 신기술을 동원해서 우리 시대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작품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사찰의 다리는 종교적 상징성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다리들처럼 교각에 만(卍)자 문양을 넣는다는지 연꽃봉우리를 조각하는 것이 아닌, 불교적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디자인 언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콘크리트는 그것대로 철 재료는 그것대로 재료가 가진 특성이 살아나야 하고, 다리의 본래적 기능 역시 확보되면서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성이 살아 숨 쉬는 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들이 생각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원사의 징검다리는 극락정토의 구름연대를 상징한다.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에 만들어진 다리에서는 신공법과 신재료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회암사에 새로 만든 다리. 무지개 다리의 이미지를 주기는 하나 콘크리트 구체에 돌을 붙여 만든 작품이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재 데크로 만든 다리. 기존의 다리에 대한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냉척)를 쉽게 푸는 법 수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약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뿔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 (054)637-9810**

정골본기(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10호-서울성동 0204호